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김 은 석[†]

(주)에스케이하이닉스

유 성 경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총 380명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 척도, 진로정체감 척도,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 진로결정수준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다수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거나 인구통계학적 응답을 생략한 설문 및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설문을 제외한 3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변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중 지식/확신성 차원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다중역할계획태도, 진로결정수준

* 본 논문은 김은석(2011)의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 김은석, (주)에스케이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Tel : 010-7434-2422, E-mail : being.eskim@gmail.com

여성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통계청(2013)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꾸준히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진로 결정을 시작하는 20대 여성의 고용률이 최근 남성을 추월하게 된 시점에서(고용노동부, 2013) 취업과 진로 설정에 대한 청년 여성의 욕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여성과 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삶에 있어 일이 갖는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 동안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진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연구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공통적인 진로 발달 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바탕이 되는 진로발달이론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이며, 여성의 진로 발달이 남성과 다르게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문미란, 2003)은 간과되었다. 그 결과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여성의 진로 발달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기가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 세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금 여성의 독특한 진로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이들의 진로 발달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Chiappone(1989)는 직업(work)은 곧 정체감의 표현(expression of identity)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진로에 있어서 자아정체감이 중요한 개인 내적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 동안 다양한 진로발달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진로발달에 있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어, Super(1953)의 진로발달이론은 진로발달

및 계획에 있어 자아개념이 갖는 핵심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아개념과 진로발달이론을 진로결정 및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로서 일관되었으며(신순란, 1999), 이와 유사하게 Tiedeman과 O'Hara(1963)는 자아정체감의 형성 및 발달이 직업 선택 및 진로발달의 목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진로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자아정체감의 중요성은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김은진, 2001; 박선영, 2007; 송경수, 2003; 신순란, 1999; 신종임, 2010; 이억범, 김연희, 2004; 조진숙, 2004; 최정윤,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높은 자아정체감을 가질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결정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녀 대학생들 모두 포함한 연구들이나 남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박미경, 김영숙과 이현림(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중에서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모애착, 부애착, 또래애착, 특성불안, 자아정체감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조진숙(2004)의 연구에서도 남녀 집단에 관계없이 대학생의 심리적 변인 중 자아정체감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자아정체감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박수길과 이영희(2002)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이 남녀 전체대학생 또는 남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여대생에게 있어서는 자아정체감 성취 수준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복희(2007)의 연구에서도 여대생의 자아정체감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선행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여대생 집단에 있어서는 자아정체감의 영향력이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변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여대생 집단을 대상으로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변인들과 높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며,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진로발달 이론가들(Super, 1984; Tiedeman & O'Hara, 1963)에 따르면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의 형성에 중요한 기초 요인이 된다. 특히, Super(1984)는 진로정체감 형성에는 일관된 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로의 구체화된 자기개념 또는 정체감 형성의 발달이 수반된다고 설명하였는데(장지선, 2003), 이는 진로정체감의 확립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확립된 진로정체감은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Harren(1979)은 자신의 진로의사결정이론을 통해서 이상적인 진로결정을 위해서는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직업적 자기개념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실제로 Holland와 Holland(1977)는 진로정체감이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목표, 흥미, 성격, 재능 등에 관해 좀 더 명확한 그림을 소유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진로정체감 검사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결정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부경(2003)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이 낮은 집단에서 진로 미결정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그들이 처해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남성에 비해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상을 발달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여성들은 가정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더 큰 진로 포부를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 있어 직무역할은 아내, 엄마, 가사책임자로서의 역할 위에 덧붙여지는 부가적인 것으로 가정되어진다(문미란, 2003). 실제로 최근 여성 취업의 장애 요인을 조사한 결과, 육아부담이 6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사부담이 13.7%로 기업의 남녀차별적 관행에 뒤이어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결과(고용노동부, 2008)를 살펴볼 때, 여성에게 부과되는 가사종사자로서의 역할과 그로 인한 갈등은 현재도 진로장벽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가정과 진로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여성의 진로 발달에서 독특한 점으로, 이러한 갈등은 여성이 충분히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저지하여, 진로 정체감이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Apter, 1985; Archer, 1985: 양은주, 한종철, 1999에서 재인용). 직업과 관련한 자기 탐색과 이해에서의 어려움은 진로 미결정의 상태를 유지되게 하고, 그 결과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준비 시기가 늦어지거나 직업 준비활동의 비율이 저조해지는 데 영향을 준다(곽윤숙, 2006; 정윤경, 1995). 진로정체감 수준이 여대생의 진로결정

수준을 높이는 변인임을 확인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양진희, 2008; 이복희, 2007)을 살펴볼 때, 여대생의 진로정체감 발달이 높은 자아정체감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수준을 높이는 과정에 개입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직업심리학 연구에서 여성의 진로발달에 있어 주된 어려움으로 간주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활동 체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문미란, 2003; Closer, 1984). 실제로 여성의 비경제활동 사유 중 육아와 가사가 지속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0), 이러한 결과는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성이 직업적 상을 발달시키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 과정에서 여성에게 이를 양립할 심리적인 준비 단계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Weitzman(1994)은 여성으로 하여금 진로에 대한 내적 장애물, 즉 그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중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다중역할에의 참여를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하게 할 수 있도록 다중역할 계획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진로와 가정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과 가정과 진로 역할 간 중첩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다중역할 현실성이라는 모형에 기초한다. 이 모형은 Crites(1978)의 진로 성숙도 모형에 근거하고 있으며, 여성이 앞으로 다가 올 다중역할에 대하여 계획하는 태도를 일종의 진로 성숙도 혹은 여성의 삶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발달적 과업에 대한 준비도의 개념으로서 고

려한다. 즉, 다중역할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계획을 잘 세운다는 것은 여대생의 진로 태도가 성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 성숙을 자아의 이해,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계획과 진로 선택을 통합, 조정해나가는 발달단계의 연속으로 요약할 때(송인순, 2009),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역시 여성의 진로 발달단계에서 주어진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 개념으로서 자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달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동안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자아정체감과 진로 태도 성숙 간의 관련성이 검증되어 왔으며,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 성숙 역시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자아정체감과 진로 태도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권용미(2003)의 연구에서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태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아정체감 변인은 진로 태도 중 확신성 차원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길정(2003)의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높은 진로 성숙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자아정체감이 발달단계에서의 진로 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에서 여대생의 주요한 발달과업인 다중역할에 대한 준비도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Weitzman(1994)은 개인이 성취한 다중역할 준비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에는 네 가지 하위 차원이 있는데, 먼저 지식/확신성 차원은 다중역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지 알고 있으며 그러한 생활방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정도

를 반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다중역할에 대한 몰입 차원은 진로와 가정에 대한 책임감 두 가지를 모두 성취하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세 번째 독립성 차원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마지막으로 개입 차원은 개인이 다중역할계획에 개입하고자 하는 정도와 계획의 필요성을 급박하게 지각하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 척도를 사용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다중역할에 대하여 잘 계획하고 준비되어 있을수록 여대생의 진로 발달 수준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경은(2010)의 연구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가 현실적이고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한 진로장벽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영지(2008)의 연구에서 다중역할 갈등으로 인한 진로장벽이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와 부적인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과 일치한다. 다시 말해서, 다중역할에 대하여 미리 잘 준비한다면 다중역할이라는 예기된 진로장벽의 인식이 감소될 것인데, 이러한 장벽지각의 저하는 곧 진로 결정에 있어서 더 확신 있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문미란(2003)의 연구와 양은주와 한중철(1999)의 연구에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의 4가지 하위차원 중 지식/확신성 차원이 증가할수록, 다시 말해서 여대생이 다중역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 지 잘 알고 있으며 그러한 생활방식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확신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잘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지식/확신성 차원을 제외한 다른 하위차원들은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 중 지식/확신성 차원만을 사용하여,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에게 있어 일이란 자신을 표현하고 성취하는 수단이나, 여성에게 부과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한계들로 인하여 직업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여성들이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진로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여성의 진로 발달을 효과적으로 조력하는 진로 상담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여대생 3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다수의 문항을 빠뜨리고 응답하거나 인구통계학적 응답을 생략한 설문 및 무작위로 응답한 것으로 보이는 설문을 제외한 총 36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

합된 응답자 중 여자 대학교의 학생은 279명 (76.4%), 남녀공학 대학교의 학생은 86명 (23.6%)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 84명(23.0%), 2학년 78명(21.4%), 3학년 118명(32.3%), 4학년 (85명(23.3%)이었다. 전공은 인문과학계열 53명 (14.5%), 사회과학계열 106명(29.0%), 경영계열 51명(14.0%), 이공계열 41명(11.2%), 사범계열 47명(12.9%), 예체능계열 67명(18.4%)이었다.

측정 도구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 (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내용을 신순란(1999)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주체성 8문항, 자기수용성 8문항, 미래확신성 8문항, 목표지향성 8문항, 주도성 8문항, 친밀성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많이 그렇다'로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순란(1999)의 연구에서 6개 하위 척도의 *Cronbach's a*는 .79 ~ .8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는 주체성 .81, 자기수용성 .83, 미래확신성 .92, 목표지향성 .82, 주도성 .86, 친밀성 .87로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과 김계현(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한국형 진로정체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 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 정체감의 발달 수준을 측정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역으로 채점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그림이 있음, 즉 진로 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1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채점은 4점 Likert 척도 상에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아주 그런 편이다'로 응답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의 연구에서 *Cronbach's a*는 .89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2로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가정과 진로 간의 갈등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준비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Weitzman(1994)이 개발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척도를 양은주와 한종철(1999)가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의 하위 척도에서의 높은 점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한 더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경향을 나타낸다(Peake & Harris, 2002).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지식/확신성 10문항, 몰입 10문항, 독립성 10문항, 개입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선행연구(양은주, 한종철, 1999)에서 지식/확신성 차원만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식/확신성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양은주와 한종철(1999)의 연구에서 지식/확신성 차원의 *Cronbach's a*는 .7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2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수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한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개발한 한국진로미결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미결정의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수준'을 알아보려고 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문항을 역으로 채점하여 총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각 하위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해당 미결정요인을 적게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총 22 문항으로 직업정보 부족 6문항, 자기명확성 부족 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 4문항, 필요성인식 부족 4문항, 외적장애 4문항으로 구성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탁진국과 이기학(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직업정보 부족 .83, 자기명확성 부족 .88, 우유부단한 성격 .72, 필요성인식 부족 .62, 외적 장애 .6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직업정보 부족 .87, 자기명확성 부족 .88, 우유부단한 성격 .80, 필요성인식 부족 .73, 외적 장애 .65로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이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조영일, 2012). 넷째,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다중역할계획에 대한 태도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자아정체감, 진로정체감,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진로결정수준의 일반적인 경향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그 하위 요인들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정체감은 진로정체감($r=.65, p<.01$),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r=.42, p<.01$), 진로결정수준($r=.71, p<.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었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로와 관련한 자아상이 뚜렷하고 다중역할 계획에 대하여 잘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진로정체감은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r=.37, p<.01$), 진로결정수준($r=.76, p<.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으며,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는 진로결정수준($r=.40, p<.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표 1. 주요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2	.76**	1													
3	.73**	.56**	1												
4	.68**	.42**	.41**	1											
5	.83**	.72**	.54**	.48**	1										
6	.74**	.44**	.38**	.36**	.61**	1									
7	.67**	.37**	.41**	.23**	.40**	.48**	1								
8	.65**	.42**	.42**	.80**	.51**	.40**	.23**	1							
9	.42**	.35**	.41**	.35**	.33**	.23**	.22**	.37**	1						
10	.71**	.49**	.45**	.73**	.54**	.50**	.37**	.76**	.40**	1					
11	.49**	.36**	.26**	.62**	.36**	.32**	.16**	.65**	.29**	.84**	1				
12	.63**	.41**	.36**	.74**	.51**	.44**	.24**	.79**	.31**	.78**	.56**	1			
13	.77**	.51**	.50**	.57**	.56**	.65**	.58**	.60**	.39**	.76**	.48**	.64**	1		
14	.25**	.14**	.22**	.22**	.19**	.16**	.18**	.11*	.15**	.46**	.26**	.14**	.20**	1	
15	.33**	.27**	.30**	.30**	.24**	.18**	.18**	.34**	.24**	.59**	.38**	.25**	.33**	.22**	1
M	3.48	3.66	4.10	3.25	3.23	3.30	3.33	2.42	3.04	3.50	3.04	3.37	3.17	4.16	3.99
SD	.55	.59	.66	.93	.73	.76	.85	.59	.65	.66	.98	1.09	.94	.79	.80

주1. 1: 자아정체감 (2: 주체성 3: 자기수용성 4: 미래확신성 5: 목표지향성 6: 주도성 7: 친밀성) / 8: 진로정체감 / 9: 다중역할계획태도(지식/확신성) / 10: 진로결정수준 (11: 직업정보 부족 12: 자기명확성 부족 13: 우유부단한 성격 14: 필요성인식 부족 15: 외적장애)

주2. * $p < .05$, ** $p < .01$ (양방검증)

매개효과 검증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Tolerance 값이 .58~1로 .1 보다 확연히 크고, VIF 값이 1~1.73으로 10 보다 현저히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계수는 1.85~1.88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은 매개변인인 진로정체감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beta = .65,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1, p < .001$). 3단계에서 진로정체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자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beta = .51, p < .001$),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지만($\beta = .38,$

$p < .001$), 2단계보다 회귀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진로정체감은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9.94 ($p < .05$)로 산출되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매개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50.7%에서 8.4%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진로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이 함께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총 65.6%였다($R^2 = .656$).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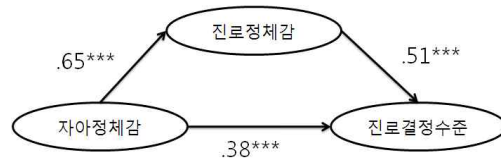


그림 1. 진로정체감의 부분 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지식/확신성 차원의 매개효과

매개변인인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하위차원들은 서로 상관이 낮아서 하나의 구인이기 보다는 서로 다른 척도일 가능성이 있으며, Baron과 Kenny의 매개효과 검증 조건으로 매개변인은 종속변인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하위 차원들 중에서 지식/확신성 차원만이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과의 상관이 유의미하므로, 지식/확신성 차원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2.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B(SE)	β	R^2 (adj- R^2)	ΔR^2	F
검증 단계 1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692(.042)	.650***	.422(.421)		265.178***
종속변인 : 진로정체감					
검증 단계 2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855(.044)	.712***	.507(.506)		373.472***
종속변인 : 진로결정수준					
검증 단계 3					
매개변인 : 진로정체감	.573(.046)	.508***		.572	
			.656(.654)		345.244***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459(.049)	.382***		.084	
종속변인 : 진로결정수준					

주. N=365, *** $p < .001$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중다회귀분석의 가정이 위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였다. 변인들의 Tolerance 값이 .82~1로 .1 보다 확연히 크고, VIF 값이 1~1.22으로 10 보다 현저히 작았으므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계수는 1.88~1.98로 2에 근접하여 오차항의 독립성 가정 역시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은 매개변인인 지식/확신성 차원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42, 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은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71, p<.001$). 3단계에서 지식/확신성 차원을 매개변인으로 투입하자 지식/확신성 차원이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서($\beta=.12, p<.001$), 독립변인인 자아정체감의 종속변인인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영향이 여전히 유의하지만($\beta=.66, p<.001$),

2단계보다 회귀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지식/확신성 차원은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이 2.78 ($p<.05$)로 산출되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지식/확신성 차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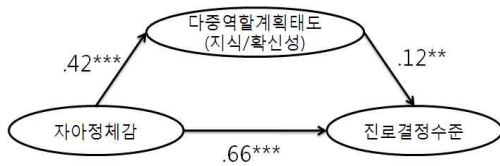
매개변인의 영향을 통제하였을 때,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50.7%에서 36.1%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지식/확신성 차원과 자아정체감이 함께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정도는 총 51.8%였다($R^2=.519$).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지식/확신성 차원의 매개효과를 나타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지식/확신성 차원의 매개모형과 표준회

표 3.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의 관계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지식/확신성 차원의 매개효과

	B(SE)	β	$R^2(\text{adj-}R^2)$	ΔR^2	F
검증 단계 1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494(.055)	.421***	.178(.175)		78.392***
종속변인 : 지식/확신성					
검증 단계 2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855(.044)	.712***	.507(.506)		373.472***
종속변인 : 진로결정수준					
검증 단계 3					
매개변인 : 지식/확신성	.120(.041)	.117**		.157	
			.518(.516)		194.821***
독립변인 : 자아정체감	.796(.048)	.663***		.361	
종속변인 : 진로결정수준					

주. ** $p<.01$, *** $p<.001$



** $p < .01$, *** $p < .001$

그림 2.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지식/확신성 차원의 부분 매개모형과 표준회귀계수

귀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집단에 대한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고자 이러한 과정을 매개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의 진로 결정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 진로정체감 변인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지식/확신성 차원 변인이 각각 어떠한 매개 효과를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시사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정체감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그 자체로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상이 뚜렷해짐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각 변인들의 진로결정수준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았을 때, 자아정체감이 진로정체감을 통하여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양이 57%로서 자아정체감이 8%의 직접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설명력을 보였

다. 이는 여대생의 진로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한 이복희(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의 진로 상담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적 상을 발달시키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중 지식/확신성 차원이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그 자체로 진로에 대한 결정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과 동시에,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앞으로 다가 올 다중역할이라는 발달적 과업에 대한 태도가 성숙해짐으로써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있고 다중역할을 병행하는 여러 방법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확신할수록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진다는 양은주와 한종철(1999)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더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자아정체감 발달의 선행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에서 확고한 자아정체감 발달을 기반으로 하여 다중역할에 필요한 계획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진로 발달에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남성과 여성의 구분 없이 공통된 진로 결정 과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가정되어 왔으며, 여성 진로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하는 연구들은 실시되어 왔으나, 그에 비해 여

성의 독특한 진로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특히, 자아정체감의 경우 남녀에 관계없이 진로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여성의 진로 발달에 있어 중요하게 강조된 변인들인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포함함으로써 자아정체감이 여성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보다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둘째, 자아정체감이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중 지식/확신성 차원의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상담 현장에서 보다 확실하게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도록 조력하기 위하여 어떠한 접근들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시함으로써 진로 상담자에게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상담에서 진로 결정 문제에 접근할 때, 자신의 정체감을 바탕으로 진로에 대한 뚜렷한 상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가 올 다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들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증진시키는 작업들이 요구됨을 시사함으로써 여대생의 진로 상담 장면에서 활용 가능한 개입의 측면들을 제공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여성의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여대생을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그러나 남성의 진

로 결정과 구별되는 여성의 진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남대생을 포함하여 남녀별 비교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의 경우 남자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남성에게 있어서 가정역할과 직무역할 모두에 참여하는 것은 역사적, 사회 학습적으로 볼 때 당연한 일반적인 양상이고, 이 두 가지 역할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다중역할에서의 성차(Long & Porter, 1984: 문미란, 2003 재인용)를 고려할 때, 남대생의 진로 결정 과정에서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여대생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된다. 이와 같이 성차를 반영할 수 있는 진로 관련 변인들에 대한 실제적인 차이검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독특한 진로 발달 과정을 대표하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변인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에게 부여되는 가사종사자로서의 성역할로 인한 갈등을 기반으로 하며, 예기된 역할 갈등에 대한 준비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비전통적 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들이 전통적인 학과에 재학 중인 여대생 보다 성역할 태도에 있어 진보적이며, 특히 성별분업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 진보적이라는 연구결과(곽윤숙, 2002)를 고려할 때, 비전통적 학과 재학 여대생들의 경우 다중역할로 인한 예기된 불안을 더 낮게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 변인의 영향력이 전통적 학과 재학 여대생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세

부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추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결정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여성의 진로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진로정체감과 다중역할 계획에 대한 태도를 선택하여 각각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진로 발달에 고려되어야 할 변인들은 보다 다양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들로는 이러한 변인들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여성의 진로 결정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함께 여성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하나의 구조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08). 남녀고용평등 의식조사. <http://www.moel.go.kr>
- 고용노동부 (2013). 최근 노동시장 동향분석. 2013년 5월호. <http://www.moel.go.kr>
- 곽윤숙 (2002). 여대생의 성역할 태도와 전공 선택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1), 287-310.
- 곽윤숙 (2006). 대졸 여성의 직업세계 이행: 저해요인과 지원체제 방안. *진로교육연구*, 19(2), 1-16.
- 권용미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길정 (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정체감 수준을 매개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미란 (2003).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과 자기효능감 및 다중역할갈등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미경, 김영숙, 이현림 (2008).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7(2), 1-26.
- 박선영 (2007).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전공진로 비선호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길, 이영희 (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40-162.
- 박완성 (2002). 고교생의 진로자아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관련 변인과의 관계: 심리적 독립성, 성역할 정체감,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부경 (2003).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진로 정체감, 진로 의사결정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경수 (2003). 대학생들의 불안, 자아정체감이

-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순 (2009). 자아개념과 불안이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순란 (1999). 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종임 (2010). 대학생의 부모지지와 자아정체감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은주, 한종철 (1999). 여대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 연구 - 태도와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1), 79-94.
- 양진희 (2008).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대생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 (2010).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15. <http://www.mogef.go.kr>
- 우영지 (2008). 여대생의 개인 특성에 기초한 다중역할계획태도 군집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지각 수준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복희 (2007).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4(2), 19-35.
- 이억범, 김연희 (2004). 대학생의 다중지능, 학교환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간의 인과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39-53.
- 장지선 (2003).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 및 애착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경은 (2010). 이성 관계 애착과 진로장벽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다중역할계획태도의 매개효과 분석: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윤경 (1995). 여대생의 취업률 저조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영일 (2012). <고급심리통계> 수업자료.
- 조진숙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윤 (2005).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미결정 및 자아정체감과와의 관계.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통계청 (2013).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5월. <http://kosis.kr>
- Apter, T. (1985). *Why women don't have wives: Professional success and motherhood*. New York: Schoken Books.
- Archer, S. L. (1985). Career and/or family: The identity process for adolescent girls. *Youth and Society*, 16, 289-31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iappone, J. M. (1989). Clinical issues in career counseling of adult: A new challenge. *Career Planning and Adult Development Journal*, 5(3), 5-14.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Theory and research handbook* (2nd ed.).

- Monterey, CA: McGraw-Hill.
- Ha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119-133.
-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414.
- Peake, A., & Harris, K. L. (2002). Young adults'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The influence of gender, career traditionality, and marriage pla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405-421.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Super, D. E. (1984).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3), 282-296.
- Tiedeman, D. V., & O'Hara, R. P. (1963). *Career development: Choice and adjustment*. New York: Colla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eitzman, L. M. (1994). Multiple-role realism: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rocess of planning to combine career and family roles. *Applied and Preventive Psychology, 3*, 15-25.

원고접수일 : 2013. 06. 18

수정원고접수일 : 2013. 07. 30

게재결정일 : 2013. 08. 27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on the Relation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Eun-Seok Kim

SK Hynix

Sung-Kyung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and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on relation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for female college student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380 female undergraduate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each variable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suggested by Baron and Kenny(1986). The results of data analysis wer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career identit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Second,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knowledge/certainty of the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Finall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implications in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on career counseling for female college students are addressed.

Key words : *ego-identity, career identity,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career decision level*